

나의 약함 때문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Shining Through My Weakness

사무엘상 10장 17-27절

-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20.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파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3. 그들이 달려 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5.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6. 사울도 기브야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직접 세우려고 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합니다(18, 19). 그러는 한편 그들이 왕을 세우도록 허용해줍니다(19절 이하).

왜 왕을 세우는 일을 질타를 하면서, 동시에 왕을 세우는 허락했을까요?

2.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왕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22, 23절)

3.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왕은 '짐 보파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대로 뽑은 왕의 정체는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스스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가 고집한대로 밀어부쳤던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이 주었던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4. 비록 내가 선택한 것이 보잘 것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왕을 진정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에 인용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밝게 부각하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다.

5.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묵살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결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영광 받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그런 약한 자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6.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이렇게 뽑힌 왕을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일에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27절)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 세력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생각해봅시다.

